

제418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13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기획재정부 소관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상정된 안건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1
가. 기획재정부 소관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2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09시04분 개의)

○소위원장 정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기획재정부 보류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기획재정부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09시05분)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저께 예비비가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었고요. 그것 말고 그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미리 간 자료는 별 의견들이 없으신 걸로……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요. 별 의견들 없으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특별히 설명하실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예비비 관련해서 어제 논의하던 내용을 이어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감액 건인데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간사님들이 만나거나 좀 협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따로 체크를 안 해 봐 가지고……

○이종욱 위원 저희는 내부적으로 박수영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한테 진행 상황을 보고 드렸고요. 그 뒤에 따로 만나셨는지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원래 오늘 우리가 9시로 다시 소위를 잡으면서 양당 간사 간의 협의, 어제는 소소위라는 표현을 쓰셨습니까마는 하여튼 그래도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양당 위원을 대표하는 간사들의 협의를 좀 거치고 나서 오늘 9시에 최종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사들의 협의를 통해서 뭔가 조종된 게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왔을 텐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결국은 우리 소위 차원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제가 기억할 때 양당 간사님들보다도 국민의힘 간사님, 위원장님께 우선 말씀드리고 의견을 한번 조율받아 보시겠다 이렇게 기억이 나고요.

우리 간사님하고는 제가 어저께 늦게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간사님은 박수영 간사님하고 특별히 얘기를 한 것 같지도 않고 아무 말씀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우리 소위에서 다 결정하는 대로, 그다음 전체회의에서 또 논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박수영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셔서 어저께 입장에서 좀 변화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정태호 간사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요. 우리 소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어제 간사 간 회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 쪽에서는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겠냐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렇지요? 그게 꼭 필요하나, 여기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런가?’ 하면서……

하여튼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견을 나눴어요. 의견을 나눠 가지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안이 예년에 비해서 과한 수준이 아니고 굳이 삭감한다면 어떤 삭감 재원으로서의 이유인데 그것은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삭감 규모를 보게 되는 예결위 차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져온 규모가 코로나 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거의 역대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과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감액을 해서 다른 증액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의 4조 8000억이, 그러니까 6000억이 증액돼서 4조 2000억에서 4조 8000억이 됐는데 2024년은 예비비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 안 해서 모르겠어요. 현재 짐작이 한 1조 5000억 정도 쓰인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전에 제출된 2023년도 예비비를 보면 4조 6000억 중에 3조 3000억이 불용됐거든요. 그러니까 1조 3000억을 사용한 거예요. 올해도 한 1조 5000억 정도 쓰인다고 보면 항상 2조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50% 삭감을 제가 당초에 안을 내놔던 거고요. 그러면 4조 8000억 중에 2조 4000억 삭감인데 논의하던 중에 2조 4000억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어저께 다시 그것의 50%인 1조 2000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1조 2000억이 줄어들면 3조 6000억이 되거든요. 이것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3조 6000억이면 매년 집행되던 액수에 훨씬 초과하는, 거의 2배 가까운 액수거든요. 원칙에 따라서 예비비가 집행된다고 보면 그 정도면 되고.

그것을 초과해서 만약에 삭감을 안 해야 된다는, 1조 이렇게 나오는…… 어떤 재난·재해 이런 게 생긴다고 그러면 1조 이상의 재난·재해면 추경을 편성해야지요, 필요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칙적으로, 매년매년 반복되고 매년매년 지적되고 하는 사항인데 이번만큼은 원칙대로 감액하고 예비비가 집행돼야 된다.

그래서 1조 2000억의 근거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걸 잘라서 무슨 증액하는 데 사용, 그건 두세 번째 다음 단계고요. 그 배경을 조금, 논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재난·재해는 사실은 없는 게 좋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없는 게 좋지요.

○**이종욱 위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많은 게 사실은 좋은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집행잔액이 있다는 것이 삭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예비비가 부족했던 해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논의보다는 오히려 예비비가 없어서, 소진돼서 증액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충분히 줘야 되고 과한 수준이 아니냐 그런 정도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삭감 재원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예결위에서 지난 한 이삼 년간 그런 차원에서 몇천억 했고……

예결위 차원에서도 예비비나 국채이자선 최종 단계에서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재

위에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선배님들이 기재위에서는 부대의견을 달든지 그런 전달만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로 삭감을 하지는 않았다. 적게 삭감하는 숫자도 문제고 많은 것도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재위에서 의견만 달아서 그냥 넘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김태년 위원님.

○김태년 위원 저는 이것 길게 토론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토론은 충분히 됐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의 가용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비비를 충분히 담아 놓고 어떤 상황들을 대비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세수나 또는 정부의 재정지출들을 쭉 다 살펴봤을 때 지금 재정 여력이 아주 부족하거든요, 이유는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물어 둘 필요가 없다, 이것은 재정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된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사업들이 많고 또 재정 투입을 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 사업들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게 우리가 재정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비비로 감당 못 할 정도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추경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 예측되지 않는 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재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예비비 많이 담아 뒀다 이걸 별로 논거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규모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삭감하자고 하는 그 정도 규모면 충분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토론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양당의 논거들은 지금 다 나온 거니까 위원장께서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알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아까 뭐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다 나온 이야기들입니다마는 예비비의 집행잔액 문제가 향후 여러 가지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또 그런 긴급한 수요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김태년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의 국가재정 상황, 특히 내년도의 예산 수요 상황이 그러냐를 따져 보자는 게 그동안의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의 집행률을 봤을 때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게 확인되었다. 물론 얘기하는 게, 그러나 재난·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은 이미 행정안전부에 9000억가량의 예산이 있고 또 나머지 농식품부를 포함해서 각 부처에도 조금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남은 목적예비비로 어렵다면 그건 진짜 아마 수조 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예비비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으로 가야 한다 이 말씀을 저희가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예비비와 관련해서 정부가 결국은 또 이게 남으면, 올해와 작년처럼 또 세수 부족 상황이 나올 경우에는 결국 이것을 가지고 또 불용 처리해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걸 편성하려고 하는 의도, 그래서 재정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용도로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용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곱씹어 봐도 2019년, 20년도가 3조 내외였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편성하는

데는 우리도 동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3조 6000억이면.

그래서 1조 2000억을 감액하자는 건데 그것도 부담된다면 좋다, 그러면 1조만 감액하고 추가적인 감액은 예결위에서 더 들여다보고 대신 국고채 상환 이자와 관련해서 지금 30조가 편성돼 있는데 그 30조에서 2000억 정도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도 커지긴 합니다마는 이자 상황 문제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동안 정부가 해 온 것처럼 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억 정도를 거기에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해서 1조 2000억을 맞추자라고 제가 그나마 기재위 단계에서 정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오히려 제안을 드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전체, 아까 그런 논거를 이유로 해서, 근거로 해서 1조 2000억 감액을 소위 단계에서 이제는 의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이나 위원님들 다른 의견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예결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또 이따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소위에서는 1조 2000억을 삭감하는 걸로 하고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소위원장 정일영 예.

○이인선 위원 사실 저는 예결소위는 기재위에서 처음 경험을 하는데요.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 불용 처리되더라도 그 돈을 어디 땅에 묻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불용 처리될 것을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예비비가 미사용된 것은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적었던 것에 기인하고 또 코로나 때는 한 90% 정도를 썼더라고, 집행요요. 그런데 그 전에도 쭉 보니까 어차피 집행률이 40~90 정도로 변동성이 아주 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법정 한도에 맞춰서 2.0인데 나름대로 0.5 이하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불확실성도 있고 복지 증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시다마는 제 경험은 정부안이 이렇게 왔으면 더 큰 집에도 이런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예결위로 넘겨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1조다, 1조 2000억이다 이렇게 감액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가서, 저쪽 예결위에 가서 조정할 수 있도록 넘겨줬으면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정일영 예, 알았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정부 측에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위원장님 포함해서 박홍근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정부 입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좀 전에 김태년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같은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인 사업에 투입하는 게 좋겠다, 예비비를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정부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인 사업에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더 중요한 사업이 예결위 단계에서 여야 간에 서로 확인이 된 다음에 반영, 예비비 삭감을 어느 정도 하실지 결정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김태년 위원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그러면 관서업무비량 특경비는 원안으로 가는 것으로……

○소위원장 정일영 어저께 원안으로……

○박홍근 위원 아니, 관서는 그렇게 했고 특경비는 어제 정확히 얘기는 안 했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의결한다고 하셨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특경은 뭘 만들어 오기로 하지 않았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법석 어제 아마 특경은 다른 부처, 다른 청 단위하고 같이 한번 봐 주십사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듣기로는 통계청 같은 데는 원안으로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부는 말씀대로 관서업무추진비는 5% 삭감, 특경비는 원안 유지해주시기를 정부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어제 그것 정리 거의 됐던 것 아닌가?

○박홍근 위원 저는 그렇게 했는데 김태년 위원님이 특경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서 가지고……

○소위원장 정일영 아, 그런가요?

○박홍근 위원 그래서 저는 관서업무추진비는 5%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그냥 수용하는 게 어떠냐고 어제 말씀드렸던 거고, 특경비는 좀 문제 제기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냥 예결위 단계에서 좀 더 살펴보셔야, 부대의견을 달고 넘기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하시지요.

김태년 위원님.

○김태년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증액 부분 등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이종욱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정일영 예.

○이종욱 위원 이제 의결하시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협의해서 해 왔고, 지금 이 사안이 여야가 기재위 차원에서 종래에 해 오던 것과 달리 양당 입장 차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협의는 안 하고 그냥 표결로 가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지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고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결하시기 전에.

○소위원장 정일영 정회를 하는 이유는……

○이종욱 위원 물밑 협상을 다시 한 번 더 하자는 거지요, 여야 간에.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한 5분만 할까요, 바로 다음 회의들이 연결되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요. 9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3분 회의중지)

(09시3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정일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증액 부분 등에 대한 정부 측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 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여야 합의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당 위원이 다 빠져 있는 상황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요? 증액은 합의가 됐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증액과 감액을 따로 보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박홍근 위원 왜 그래요?

○김태년 위원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증액에 대해서도……

○김태년 위원 알았어요. 그대로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그대로 계서.

감액 부분 다시 심사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증액은 다 놔두고 감액만 빠른 속도로……

잘 들으세요.

감액, 다시 시작합니다.

1쪽, 협동조합활성화.

○김태년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나? 이미 증액 부분은 어제까지 해서 다 합의를 본 건데……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도……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정부 말 안 들으면 감액을 못 한다는 이야기인데 국회를 무시한, 국민을 무시한 그런 기획재정부 행태에 대해서는……

○김태년 위원 아니, 편성권 갖고 있다고 심의권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을 해요?

○박홍근 위원 그리고 감액 부분은,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 없어요. 국회법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동의를 못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법 위에 있습니까, 기재부가? 우리가 예산을 몰라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헌법상 그다음에 국회법 등등에 의해서 정부의 동의를 의무로

하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이미 감액 관련해 가지고는 다 동의를 하셨잖아요, 최종 의결 단계만 남겨 두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연계하겠다는 게 뭘니까?

○**김태년 위원** 아니, 그리고 정부가 언제부터 국회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회의에 여야 합의를 따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회의가 국회법에 어긋나는 회의인가, 지금 이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닙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여야 합의를 왜 따져! 여야 합의는 당끼리 하는 거야, 당끼리. 합의 문제를 정부가 따질 일이 아니라고! 정부가 왜 여야 합의를 이야기하냐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년 위원** 하지 마!

아니, 지금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정부가 여야 합의를 이야기하냐고, 운운하냐고! 그건 정당끼리 하는 얘기에요, 정당끼리! 정부는 국회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회의 절차에 협조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건방지게 언제부터 정부가 여야 합의를 운운해!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가, 기재부가 상당히 오만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걸 규탄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 또 규탄을 하도록 하고.

○**박홍근 위원** 차관님, 얘기를 해 봐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증액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제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하셔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 간에 서로 모든 부분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더라는 전제하에서 정부가 동의를 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이 증액 부분은 증액 부분 따로 보고 감액 부분은 감액 부분대로 따로 보자고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전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증액 부분 따로 감액 부분 따로 보는 것은, 저도 예산심의 해 봤지만 전체 그림을 보고서 다 같이 논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 감액 부분까지 다 같이 봐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 요청은 할 수 있어요. 그런 정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까지 제가 막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법령과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우선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위원님 말씀은, 위원님께서 정부의 증액 동의 요청하신 부분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저는 규정과 절차 어떤 게 더 효력이 있느냐고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여야가 심사를 통해서, 정부까지 동의해 가지고 합의를 본 사항들이 증액으로 정리된

것이고 감액 관련해서 지금 일부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동의를 못 하겠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규정상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정하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지금 다 합의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증액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를 했고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가 협의를 해서, 심사가 돼서 다 합의를 했던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가 여당 입장을 대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여야 합의로 증액이 다 합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박홍근 위원** 그게 팩트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그 합의 자체가 유효한지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차관, 정부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말이 안 됩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동안 여야 위원, 소위원들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다 마쳤지요? 다 합의를 했지요? 그동안 정부가 동의를 했지요? 의결만 남겨 뒀지요? 지금 여기까지 팩트에서 제가 틀린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당 위원께 아직 확인을 못 해 봐서 불확정적인 상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여야 합의로, 모든 사업에 다 합의가 됐다는 부분이 아직도 유효한지 부분이 아직 확실치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홍근 위원** 차관님, 저도 상임위원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 심사 많이 해 보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게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 배석자가 다 있고 이미 관련된 부처 사람들은 ‘우리는 이게 증액됐어요, 기재위 단계에서는. 이건 우리가 얼마로 감액이 됐어요’라고 다 알고 간 상황이에요. 이제는 의결 절차만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액에 대해서는 이미 다 끝난 거고 감액 부분만 남아 있다라고, 그걸 누가 부정을 해요, 사실관계를?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억지 꾀변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규정에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감액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필요 없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에 이견 없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이견 없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감액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보십시오, 빠른 속도로 할 테니까.

○**박홍근 위원** 아니,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 없다고 하니까 증액 부분 먼저 물어보세요.

○소위원장 정일영 우리가 한 증액에 대해서……

○박홍근 위원 의결하시고……

○소위원장 정일영 좋아요.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69조에 따라 증액 부분 등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 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말이 바뀌었는데.

○박홍근 위원 왜 조금 전 얘기랑 또 달라지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조금 전에 위원님이 여쭙보신 건, 제가 혹시 오해를 했을 지 모르겠지만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신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액 부분은 위원님들이 표결로 정부의 동의 없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증액 부분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증액이 가능하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부분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이틀간 증액 관련한 협의를 했고 심의를 했고 그 건건마다 정부가 동의한 게 지금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소위원장 정일영 그걸 다 부인……

○박홍근 위원 그러면……

○김태년 위원 잠깐만요.

속기록에, 지금 건건마다 동의 여부를 물었잖아요, 의결만 안 했었지.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맞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것 속기록에 다 남아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맞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자기 말을 뒤집는 거예요, 차관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말씀드렸다고……

○김태년 위원 국회를 상대로 자기 말을 막 뒤집어요? 그게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이 건건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 확인했습니다, 몇 차례.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건건마다 확인 안 한 게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다 확인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리고 합의한 것은 다 정부 동의하에 합의를 한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서 다 뒤집어 버려요? 자기 말을 뒤집어? 그것도 국회를 상대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해요? 언제부터 정부가 그렇게 국회를 상대로 감정적으로 일을 했어요? 용납이 안 되네.

아니, 건건마다 다 정부 동의하에 합의를 한 건데 감액에 이견이 있다고 본인들이 다 동의했던 사항을 한꺼번에 다 뒤집어 버려요?

○소위원장 정일영 이런 것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김태년 위원 나 이 생활 하면서 처음 봐요. 이것 처음 봐. 용납이 안 돼. 당황스러워요. 물론 이 정부 들어서서 처음 보는 행태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소위원장 정일영 하여튼 지금 기재부에서 말이 안 되는 반응을, 입장을 내놨는데 다 합의, 동의해 놓고 예비비를 삭감한다고 그러니까, 정부 측 의견 안 들어주니까 증액을 부인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틀 동안 위원님들 다 논의하고 합의…… 사실 의사 방망이만 안 두드렸지만.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정일영 예.

○김태년 위원 난 이 행태가 용납은 안 되지만 동의 안 한다고 하니까 증액 부분은 우리가 의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감액 부분 신속하게 심의를 해서 감액 부분은 의결하고 가는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빨리 정리합시다.

○박홍근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좋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서 의견을 쭉쭉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1번 말씀하십시오.

○김태년 위원 2번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일영 1번 생략.

2번.

○김태년 위원 2번, 박홍근 위원 감액 요구안.

○소위원장 정일영 감액 5억 4900만 원.

○박홍근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다음, 3번.

○박홍근 위원 하나씩, 건씩 의결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예. 큰 걸로만 하십시오, 시간을 효율적으로.

3번.

박홍근 위원님, 3억 7500만 원.

○박홍근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감액.

4번 혁신조달지원.

○박홍근 위원 이것도 제 의견으로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정일영 예, 6900만 원 감액.

국유재산관리.

○박홍근 위원 여러 분이 냈으니까 이것도 3000만 원 삭감해 주시길요.

○소위원장 정일영 3000만 원 감액.

6번 재정운용 기반 구축·운영.

○김태년 위원 이견 임광현 위원 의견대로.

○소위원장 정일영 27억 3200만 원 감액.

7번 연구개발예산 편성 이것도 1억 3200만 원 감액.

8번, 2억 감액.

○박홍근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9번.

○박홍근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10번, 2200만 원 감액.

○김태년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11번, 43억 6600만 원 감액.

○박홍근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12번, 6500만 원 감액.

○박홍근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13번, 3400만 원 감액.

예비비, 1조 2000억 감액.

○김태년 위원 아니요, 이견 50% 감액.

○소위원장 정일영 50%, 2조 4000억 감액.

국제금융센터 보조, 1억 5000만 감액.

○박홍근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전액.

○박홍근 위원 아니요, 전액이 아니라 지난번에 3600만 감액으로 돼 있는데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대로?

○박홍근 위원 다 감액하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전액 감액.

대외협력강화 2억 5800만 원, 원래 1억 뭐 얘기하다가……

전액, 2억 5800만 원?

○박홍근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감액.

연번 18번 수출입은행출자.

○김태년 위원 수출입은행은 두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냥 유지?

○박홍근 위원 제가 한 100억이나 500억 정도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원안 봐 둥시다.

○소위원장 정일영 원안.

지식협력단지 운영, 19번.

○박홍근 위원 이것 다 감액합시다.

가만있어 봐, 잠깐만요. 얼마 증액이었지요? 원래 증액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소위원장 정일영 액수는 24년도, 25년도 같네요. 그런데 증액 얘기가 있었던 건데……

○박홍근 위원 그냥 원안으로 봐 둥시다.

- 김태년 위원 원안.
- 소위원장 정일영 원안.
20번 ODA, 감액.
- 박홍근 위원 지금 100억 감액으로 돼 있는데……
- 소위원장 정일영 원래 제가 냈던 건 MOU 수준으로 해 가지고……
- 박홍근 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로 해 놓으시지요.
- 소위원장 정일영 100억? 더 안 잘라도 되겠어요?
20번입니다, ODA. 이걸 한 200억은 쳐야 돼.
200억 감액.
21번 총액인건비 기본, 4700만 원 감액.
22번 비대상 기본경비, 15억 2800만 원 감액.
23번 총액인건비 비대상, 오기형 위원님하고 두 의견 있는데 어느 수준으로 감액을……
- 김태년 위원 오기형 위원.
- 소위원장 정일영 오기형 위원안, 11억 9500만 원 감액.
비대상 기본경비, 1000만 원 감액.
- 박홍근 위원 잠깐만요. 아까 그게 사업이 24번……
예, 1000만 원.
- 소위원장 정일영 1000만 원.
25번, 13억 2500만 원 오기형 위원안 있습니다.
- 박홍근 위원 예.
- 김태년 위원 예.
- 소위원장 정일영 감액.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1000만 원 감액.
27번, 7500만 원 감액.
28번 이것도 감액.
경제교육지원, 이것 더 잘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홍근 위원 국제 컨퍼런스 꼭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 날려요.
-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얼마지요?
- 박홍근 위원 1억 4900만이었던가요? 어제 예산 심사 얼마였지……
- 소위원장 정일영 1억 7100만 원, 김영진 위원대로 다 감액.
- 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 정향우 그건 숫자가 잘못된 겁니다. 1억 4900만 원입니다.
- 박홍근 위원 1억 4900만,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 소위원장 정일영 1억 4900만 감액.
미래융복합 경제교육 21억 4300만 원 감액.
- 박홍근 위원 이걸 교육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데 절반으로 확 줄여 버립시다.
10억만 남깁시다.
- 소위원장 정일영 10억은 남기고, 그러면 얼마예요?
- 박홍근 위원 11억 4300만.
- 소위원장 정일영 11억 4300만 감액.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박홍근 위원 이게 좀 복잡한데.

○소위원장 정일영 5000억 감액으로 일단 하고 예결위에서 좀 보지요.
5000억 감액.

관서업무추진비 14억 4700만 원, 50% 감액.

특정업무경비 8억 7500만 원 감액.

거기까지입니다. 더 있나요?

수석전문위원님, 이거지요? 기획재정부.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김태년 위원 특정업무경비, 8억 7500만.

○소위원장 정일영 특정업무경비 50% 감액.

중액은 필요 없습니다. 정부 측이 말을 바꾸고 오만하고 말이 안 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틀 동안 위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규탄 대상이고 별도로 기자회견 등 입장 발표를 하도록 하고요.

○김태년 위원 우리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건가? 한 건의 이견이 생겼다고 세상에, 이틀간 심의한 것을 그냥…… 그리고 자기들이 다 동의한 것을 뒤집어 버려요? 저는 이 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박홍근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소위원장 정일영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기획재정부 소관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

○박홍근 위원 잠깐만요.

110번은 뭘니까? 이걸 세출예산이어서 그런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세제실 세출예산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몇 쪽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73쪽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이것 지난번에 얘기가, 홍보가 꼭 이렇게 필요하냐……

○박홍근 위원 2300만을 삭감해 오겠다고 했는데 이것 합의가……

○김태년 위원 이것 전액 삭감해도 돼요.

○소위원장 정일영 전액 삭감.

그러면 다 됐지요? 빠진 것 있나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기획재정부 소관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홍근 위원 예.

○김태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방금 감액 부분 심의한 것은 그대로 되는 거고, 증액 부분은 지금 심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정일영 안 된 거지요.

○박홍근 위원 의결이 안 된 상태지요.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홍근 위원 정부 원안만 있는 거고 의결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지요.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저는 분리해서 증액 부분은 의결하지 말고 놔두고 감액 부분만 의결을 하자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감액을 가지고 의결하는 거거든요. 감액만 의결하는 거예요.

○김태년 위원 예, 감액만.

○소위원장 정일영 증액은 입장을 바꿔 가지고, 이해할 수 없이 바꿨기 때문에 의결을 못 하고요. 그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 부분도 원안을 가결하는 건 아니라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에요. 원안 정부안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액 했지 않습니까? 그 감액에 대해서 의결하는 거예요.

○박홍근 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회의에 올려야 되니까 전체회의에 올릴 때는 감액 부분만 올리는……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증액 부분은 지금 심의를 안 한 거라고. 했으나 정부 동의를 받지 못……

○소위원장 정일영 심의를 했으나 정부 측이 돌연 갑자기 이해할 수 없게 입장을 바꾸면서 동의를 안 하니까 사실상 의결이 안 된 거고.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의결을 제외하는 거라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당연히 제외하는 거지요.

○김태년 위원 감액 부분만 의결하는 거라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감액만 의결되는 거예요.

○김태년 위원 그것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되나? 그러면 감액·증액이 다 지금, 증액 부분이 정부 원안 그대로 우리가 의결하는 것이 되느냐고요.

○행정실장 이상홍 감액만 심사하신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원안은 지금 정부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를 다 했으나 심의를 못 한 것이 된다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감액 부분만 의결한다, 명료하게 이렇게 처리를 할까요?

○김태년 위원 예, 명료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일영 부대의견은 있나? 없지요?

수석님, 부대의견이 있나요? 우리가 감액하면, 증액을 안 시켰는데 부대의견은 상관 없지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어요.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기획재정부 소관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김태년 위원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심의하시면서 감액 같은 경우 일부 조정하시면서 부대의견 다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전액 감액이나 이런 식으로 되면 부대의견 의미가 없어져서 그런 것 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부대의견은 빠지요.

○김태년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한 감액된 예산안, 감액 부분만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홍근 위원 예.

○김태년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액 처리를 다 했고요.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홍근 위원 기금운용과 연계된 부분은 없어요?

○소위원장 정일영 특별히 바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까 말씀하신 국채 이자 삭감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기금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홍근 위원 그렇지. 여기에서 5000억을 상환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기금운용에 어떻게 반영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냥……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일단 그것은 실무적으로 행정실에서 정리를 하고, 아까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에서 5000억을 감액했으니까 그 5000억 감액을 기금운용안에 포함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수정한 것은 수정을 하시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우리가 논의한 대로 의결을 하고 필요한 곳의 부대의견은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홍근 위원 예.

○김태년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그러면 증액도 안 하시는데……

○소위원장 정일영 무슨 증액이 있나요?

○박홍근 위원 증액 자체는 지금 다 동의를 안 한다고 하시니까.

기금에 대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아닙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했을 뿐이고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에 대해서도 지금 증액 동의를 안 하신다는 거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안 하는 거니까, 그대로 삭감된 상태에서 5000억, 기금운용계획안을 그렇게 바꿔 주시고.

5000억 그 이자만 기금에다가 정리를 해서 넣으세요. 그러면 되겠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그리고 기존에 감액 있는 부분도 그냥 원안으로 놔두는 건가요?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요. 감액은 감액대로 살아나는 거지요. 그냥 있는 거지요. 증액만 없고……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감액은 하고, 추가 감액 5000억……

○소위원장 정일영 기존의 감액은 감액대로 살아 있고 추가로 5000억 감액되고, 이해하셨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억 감액된 것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하고 감액된 것은 감액된 대로 수정해 주시고, 그 밖의 부분들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이 기금에도 일부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소위원장 정일영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홍근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부대의견도 아까처럼 증액과 연계된 부대의견은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예, 증액이 지금 안 된 거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일단 정회를 하는 게 낫겠지요?

○박홍근 위원 예, 정회를 하는 것이……

○김태년 위원 무슨 정회예요, 산회해 버리지. 다 끝내 버리지.

○소위원장 정일영 그럴까요?

○박홍근 위원 어차피 회의는 안 열릴 가능성이 있으니 정회를 해 놓으십시오.

○소위원장 정일영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정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만 증액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 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업들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약지로, 이미 우리가 다 심의를 했던 사항이고 합의까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오늘 오전에 감액하셨던 부분을 정리하고 어제까지 증액 합의하셨던 부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3장으로 정리가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번은 일반회계 사업이고 36번은 공자기금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41번부터는 국유재산기금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쪽에 있는 80번대 사업은 모두 기후대응기금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은 참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의 의견을 제시 안 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감액은 오전에 처리를 했고요.

정부 측의 이런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기획재정부의 오만함을 규탄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요.

정부 측이 없으니까…… 정부 측 의견은 사실은, 지난번에 이틀 동안 정부 측 의견을 그때 이미 다 들었습니다. 이미 들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이 합의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 의견은 동의한 걸로 간주가 되니다만 마지막 의결에 불참하고 또 오전에 반대 의견을 일부 표시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따라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여야의 합의사항에 동의한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결하면 될 거고 감액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오늘 느닷없이 감액에 대해서 이견을 단 것인데 하여튼 오늘 아침에 그동안 국회가 감액 요구했던 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종 심사를 한 만큼 수정한 의견대로 감액도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태년 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기획재정부 소관에 대하여 기존에 의결했던 부분에 지금 논의한 사항들을 추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홍근 위원 예.

○김태년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존에 의결했던 부분에 지금 논의한 내용들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홍근 위원 예.

○김태년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김태년 박홍근 이인선 이종욱 정일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전문위원 이정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국고국장 황순관

정책기획관 정향우

예산총괄심의관 유병서